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9.1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문제는 삼겹살이다.

03 종합

사랑에서 _ 못된 사람들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광주 지역 뉴스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9월 27일까지 우수건축작품 공모 접수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CMB 광주방송 집중토론 출연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위한 공유사무실 운영 계획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 나주에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된다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등 근대건축물에 관광객 증가
전남지역 20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소폭 하락

08-09 전북 지역 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역서 지역건축사 역할 등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 나서
전북 이길환 회장,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

10 전면광고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1 종합뉴스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제16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광주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6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12 독자광장

한 편의 시 _ 능소화
세상사는 느낌 _ 장소와 기억
책 소개 _ 젊은 건축가 (경계의 가치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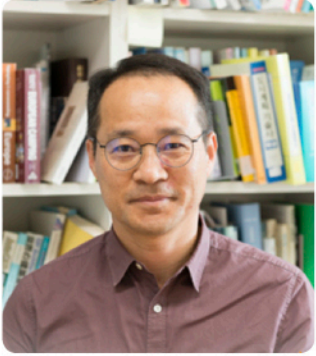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문제는 삼겹살이다.



정금호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kumho@chonnam.ac.kr

- 2007. 7. - 2008. 7.
영국뉴캐슬대학 방문교수
- 2003. 3. - 현재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2016. 4.
한국주거학회 우수발표 논문상
- 2005. 7. - 2008. 12.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자문위원
- 2018. 12.
환경부장관상 표창

삼겹살은 돼지의 갈비에 붙어 있는 살로, 비계와 살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기이다.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소고기 대용으로 돼지고기를 장려했던 정부 정책, 화식문화 등으로 삼겹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엔 1인당 불과 6.3kg였지만, 2018년엔 25.2kg로 35년 만에 소비가 4배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4.76배로 소득수준에 맞춰 삼겹살 소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이 2018년부터 쌀을 제치고 돼지가 올랐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음식별 판매량 조사에서도 1992년 삼겹살이 인기 메뉴 8위에 오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식으로 즐겨 먹는 메뉴로 돼지고기가 부동의 1위이다.

삼겹살에 대한 레시피 또한 다양하다. 백종원 제육볶음, 와인삼겹살, 고추장삼겹살 등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요리가 있다. 종류는 어떠한가? 대패삼겹살, 생삼겹살, 벌집삼겹살, 녹차삼겹살, 훈연삼겹살, 허브삼겹살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영국에서는 1,700여 개의 단어를 만들어 영어의 어휘를 넓힌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삼겹살이 우리의 식탁 문화를 바꿨다.

과거 1970년대 이전에는 조리공간과 식사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조리를 위한 연료와 기구가 형태와 규모에 의해 혹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조리는 당연 부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우리에게도 이동식 조리기구인 화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화로는 난방기구이며 간식거리인 고구마나 감자를 굽는 정도이지 식사를 위한 조리기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화로는 이동식 조리 기구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식사공간에서 삼겹살을 조리(?)하여 먹고 있다. 조그마한 부탄가스 연료를 장착한 버너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구워 먹고 있다. 공간은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능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삼겹살이 공간에 요구하고 있다.

외부공간, 옥외공간, 휴양공간의 목적까지도 바꿔 버렸다.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 여행을 간다. 여행과 삼겹살 순위가 바뀌어 버렸다. 해외 한인 식당에도 삼겹살 메뉴가 있으니 더 말해 뭐하겠는가. 삼겹살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사랑하는 삼겹살을 냄새나고, 연기가 나서 집에서는 마음 놓고 먹지 못하니 아이러니다. 그러니 삼겹살 먹으려고 캠핑, 펜션, 콘도 등으로 여행 간다. 주변 공원에선 취사금지여서 더욱 안타깝다.

주거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장소인데, 집에서 삼겹살은 예외이다. 급격히 발달한 아파트 문화가 우리의 욕구를 막고 있다. 단위 세대 중심의 문화가 집에서 친한 이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모든 아파트에서 베란다/발코니를 확장(문구상으로는 보면 베란다/발코니가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실과 방을 확장하니)하니 그나마 있던 작은 외부공간마저 없어 아파트에서 삼겹살을 먹기가 힘들어졌다. 아파트 단지 내 개방공간에서도 취사금지이니 어디에서 구워 먹을 수 있나.

인류의 최초 아파트는 로마 인술라(Insula)이다. 로마로 밀려들어 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직증축 형태를 건축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가진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서민들의 거주지로 만들어진 주택 개념이 아파트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영웅을 위한 주택'의 건설과 2차 세계대전 후 절대적인 주택난으로 영국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이름으로 대단위의 아파트를 짓는다. 한때는 사회주택이 영국 전체 주택의 60%에 이른다. 1950년대 말 고층 아파트(Tower block)의 고층 고밀 주택건설이 만연하기도 한다.

그러나 뉴햄 지방의 로난 포인트(Newham, Ronan Point)의 23층 고층 아파트 가스폭발 사고와 맨체스터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 이후 고층 아파트는 짓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아파트를 그리 좋은 주거 형태라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당시 첨단 아파트였다. 1964년 엘리베이터를 가진 고밀도의 마포아파트가 완공되었다. 철근콘크리트 건축으로 입식 내부구조였다.

아마도 최초, 첨단, 이러한 명칭 등과 급속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이 아파트가 우리의 주된 주거로 자리를 잡게 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환금성이 높으니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이만한 재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아파트는 과연 현대인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생활감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 비싼 돈 주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펜션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집에서, 집주변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삼겹살을 마음껏 구워 먹는 날을 기대하고 바란다.

욕구에 저렴하게 대응하는 집(affordable housing)이 아닌,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집(decent home)에서 살고 싶다.

아키디자인2020 출시기념 9월 한정 100만원 할인



ONLY 9월

같지만 다른카드 아키디자인 5년 장기계약 프로모션

(VAT별도)

업데이트	인증	기능		프로모션가
무제한	PC무제한	일반카드기능	써드파티&리습 (창호그리기, 단열재 등 편의기능)	<div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 -300만원(1Lic) 200만원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5년</div>

* 본 프로모션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100원! 한달에 33,000원!

사랑에서 _ 신여덟 번째

못된 사람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은 참 복잡했다. 유난히 화도 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했던 나날이었다. 그 시작은 일본의 경제 도발이었다. 일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은 당연했고, 맞대응 혹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보자는 여론에 동조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일은, 몇몇 극우파 혹은 친일파들의 반국가적 언행이었다. 보통의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따위 언행들은 어떤 심보에서 나오는 걸까? 인성도 의심스러웠고,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불쌍하게 느껴졌으며, 그들의 인생도 한심스러웠다.

여하튼 몇몇 못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서 "사지도 말자, 가지도 말자, 경제적·기술적 독립을 도모하자"고 한목소리를 내던 것은 모처럼 만의 대동 단결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단결된 모습이 자리 잡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국론이 양 갈래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양상까지 치달고 말았다. 그리고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전에 혼돈과 혼란이 난무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저명인사들이 자신이나 소속 단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가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의혹을 앞 다퉈서 양산해 냈다. 지금까지는 그 유·불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다고 할 정도였다.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까지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못된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그들의 농간에 놀아난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화가 난다.

그처럼 일본의 경제 도발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은 블랙홀처럼 한 달여 동안이나 다른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어 삼켜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사이에 벌어진 일 중 하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였다. 기형적인 수도권집중 현상을 막고, 쇠퇴하는 지방을 살려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논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패가 나뉘고 말았다.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단체 등에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이야 죽든지 살든지 수도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까? 만약 그렇다면, 참 어리석고 못된 사람들이다.

또 하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보도되기로는 광주시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광주시와 건설업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사업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

그들에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호구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더니... 그렇게 시민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못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소/식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0조의4제2항 등).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2020. 2. 21] [법률 제 16486호, 2019. 8. 20,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명의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복잡한 세상...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에서 위로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해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주)경서/EQ구조엔지니어링(주)	500,000원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350,000원
(주)대광판넬	350,000원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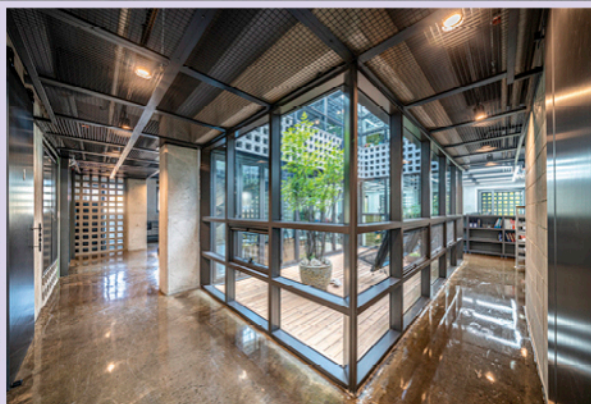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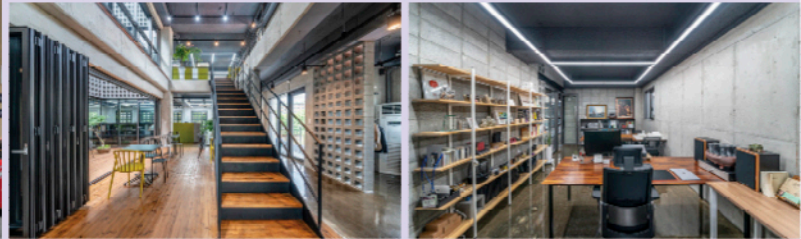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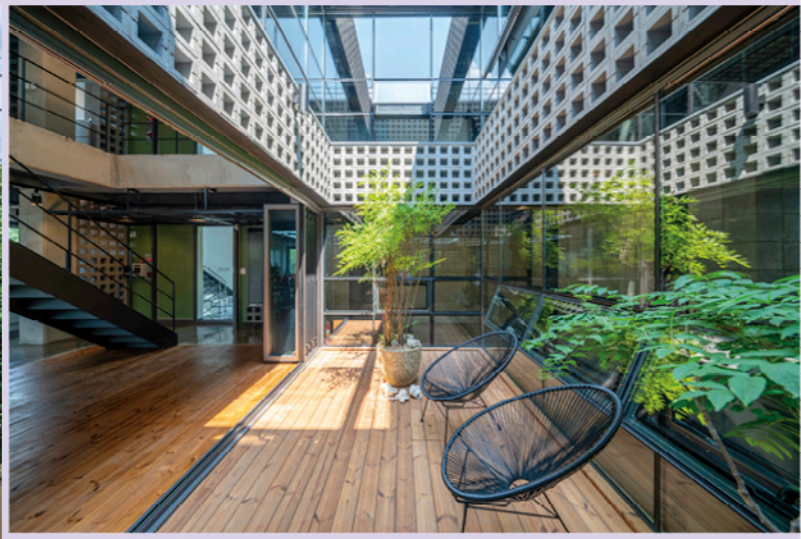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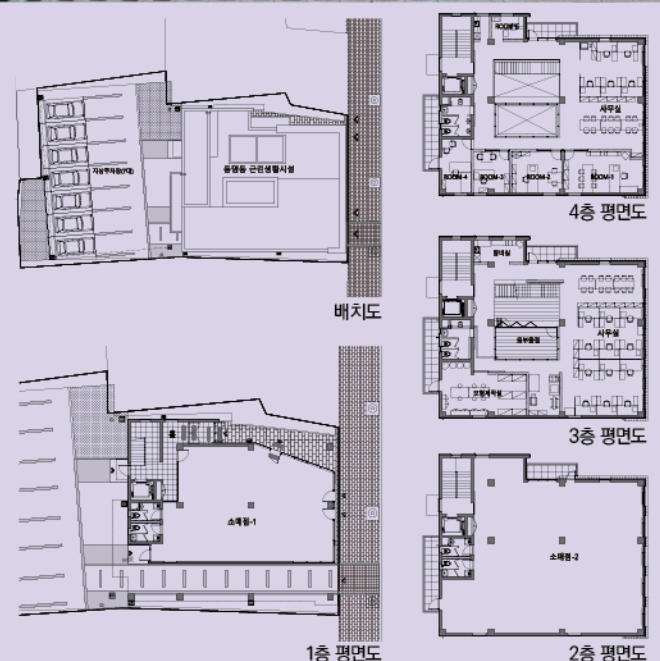
동명동 근린생활시설

이현조 건축사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57-4층
Tel. 062-415-721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8-5 / 대지면적 : 642.00㎡ / 건축면적 : 262.72㎡ / 연면적 : 864.25㎡ / 건폐율 : 40.09%
용적률 : 134.62% / 주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스타코플렉스, 큐블릭



본 대지는 광주의 구도심지 동명동의 낙후된 주거지와 ACC를 중심으로 재생되고 있는 상가 거리와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도시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계 점에서 상업건축으로서 드러나기보다 주변과 어울리는 심플한 형태와 통일된 입면 재료를 통해 정체성을 가지 고자 하였다. 큐블릭을 통한 메인 파사드는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를 연결함과 동시에 차단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며 디테일한 큐블릭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경관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외부의 자연을 실 안으로 끌어들이며, 업무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소통의 장치로서 비워낸 중정 공간을 통해 일반적인 업무공간에서 벗어난 창의력을 높이는 입체적인 업무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큐블릭은 내부인테리어로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 분위기에 통일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공간감이 연출되도록 계획하였다.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9월 27일까지 우수건축작품 공모 접수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 대상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며,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2019년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가 시작됐다.

해당 공모사업을 주관한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8월 12일 공고를 통해 올해 관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모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에 한한다.

작품접수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오는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건축사

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품접수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주간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주거 부문과 비주거 부문 각각 금상 1작, 은상 1작, 동상 1작 등 총 6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 되고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 동안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현구 회장은 "광주에서 주관했던 건축상 공모 사업이 2017년부터는 전문가 단체로 이관되어 공모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광주시 위상에 걸맞은 우수한 건축 작품들이 대거 발굴되었고 올해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1989년부터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에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6개 건축물에 대해 시상해 광주시 건축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CMB 광주방송 집중토론 출연

지난 8월 13일, '불법건축물 근절, 가능한가' 주제로... 8월 26일부터 1일까지 방영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지난 8월 13일 치평동 CMB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CMB 집중토론' 녹화방송의 토론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 녹화는 지난 7월 24일 서구 치평동에서 발생한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 불법건축물 근절,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광주경실련 고영삼 사무처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연주 의원,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길종원 교수가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고영삼 사무처장은 이번 붕괴 사고의 개요를 설명하며 사고의 원인으로 '춤 허용업소' 조례를 꼽았다. 장연주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주류 유통업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강현구 회장은 행정관청과 의회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는데 조례제정을 할 때 관련 단체의 적법한 로비의 필요함을 언급하며 "문제는 행정관청과 의회에서 적법성 검토를 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길종원 교수는 "시공과 설계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법에서 정한 설계와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했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현구 회장은 행정관청과 의회에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 시 근본적인 대응책과 시행 근거 마련을 주문하기도 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방송분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CMB 광주방송 채널에서 방영됐다.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위한 공유사무실 운영 계획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사무실 공간, 사무집기 등 공유... 9월 20일까지 희망자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건축사사무소 운영비용 절감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위해 공유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형식은 한 공간에 각자의 사무실을 두고 사무집기 등을 공유하여 유지비를 절감하게 하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재 건축실적 현황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건축-건설경기 불황에 대한 방어적 대비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운영계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건축사회원은 오는 9월 20일까지 사무국(TEL. 062-521-0025~6)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 7일 개막... '휴머니티' 주제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에게 10월 25일까지 입장권 무료 배부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난 9월 7일 개막했다. 10월 31일까지 55일간 열리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제는 인간(Human)과 공동체(Community)의 합성어인 '휴머니티(HUMANITY)'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디자인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 세계 50개국 작가 1,130여 명, 600여 개의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헝가리 출신의 작가 키스 미크로스과 네덜란드 대표 디자이너 댄루스 가르데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43명의 작가가 18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행사 기간 동안 주제관, 국제관 등의 본전시와 특별전, 지역산업전, 국제학술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주제관에서는 디자인이 인류의 사회 경제 산업변화에 미친 영향력과 미래의 디자인 방향,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삶의 감성과 디자인의 휴머니티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회원들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복지 차원에서 10월 25일까지 입장권을 무료 배부(방문 수령)한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광주지역 건축물 인허가 면적 증가해

인허가 면적 236만6천㎡로 작년 동기대비 52.9% 증가

국도교통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주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인·허가된 건축물 면적은 236만6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2.9%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 인허가 면적은 주거용(122만4천㎡)이 전년 동기 대비 65.5%나 급증했으며 상업용(73만6천㎡)은 지난해보다 무려 83.3% 증가했다.

문교사회용(11만1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반면에 공업용(13만9천㎡)은 전년 동기 대비 64.3%나 늘었다.

광주권역 대학교 건축 전공 학과,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지난 9월 3일 광주대를 시작으로 9월 5일 전남대, 조선대도 연달아 개최



광주지역 대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 예정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우수건축작품전이 9월 개강과 함께 시작됐다.

먼저 9월 3일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호심관 1층 로비에서 작품전 개막식을 갖고 4일간 전시를 진행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도 9월 5일 공대2호관 명명홀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3일간 전시를 진행했으며,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도 동남자애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9월 7일까지 전시를 진행했다.

호남대학교 건축학과는 10월 또는 11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건축 관련 학과도 9월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를 시작으로 10월에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등이 건축작품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건축가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학교 하반기' 교육 개최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남대에서 총 7회 진행... 11세부터 19세 대상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유우상)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하반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하반기'는 서울, 광주, 경기 지역의 어린이(11세~13세), 청소년(14세~16세, 17세~19세)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답사 등의 체험을 통해 건축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진행된다.

이번 건축학교 하반기 광주교육은 해당 기간 동안 토요일, 총 7회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미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오는 9월 16일 교급별 20명 선발자 명단을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https://cafe.naver.com/toyoarchscho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회원동정

- 퇴회
 - 류연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 변경(상호&소재지)
 - 강동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라움 / 광주 서구 화정로 268, 3층
- 변경(소재지)
 - 장성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흙 /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102, 202호
- 부고
 - 류연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 본인상 - 08월 14일(수)
 - 유영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톨 / 시모상 - 08월 28일(수)
 - 김기일 건축사 / 다진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8월 29일(목)

남시 레포트타운 조성사업 신축공사

범 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50-1, 2층
Tel. 061-372-2587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 내지면적 : 29,181.0㎡ / 건축면적 : 494.95㎡ / 연면적 : 704.24㎡ / 건폐율 : 28.25% / 용적률 : 40.20%
주용도 : 관광휴게시설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 나주에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된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나주시 금성관 일대에서...



나주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간 금성관 일대에서 '역사가 있는 건축, 살고 싶은 집 한옥'이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 21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최하고 나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 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한옥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옥의 대중화,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한옥박람회는 지난 1~6회까지 전남 영암군 주관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이번 회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박람회 개최지 희망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8일 나주시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나주시는 특히 지난해 12월 북망문(北望門) 끝으로 복원을 마무리한 나주성 4대문을 비롯해 박람회 개최 장소인 금성관과 인근 나주목사내아, 나주향교 등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돼있을 뿐만 아니라, 읍성권역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내 한옥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박람회 취지에 부합한 최적지라는 평가다.

또한 같은 기간 개최 예정인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제6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전'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 8일 이번 박람회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박람회장 전시·체험 행사 등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옥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장인 작품을 비롯한 나전칠기 등 지역 공예인 작품, 지역대학교(전북대, 조선대) 전통한옥모형 등 다양한 전시행사(5종)가 마련된다.

또한 제와장이 직접 시연하고 직접 기와를 제작해보는 '제와 체험'을 비롯한 대패질, 한옥 목구조 결합, 전통 대장간, 단청 그리기 등 관람객이 평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등 근대건축물에 관람객 증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0% 증가한 105,481명 방문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근대역사관에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는 105,4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945명(13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람객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헌 131-009-47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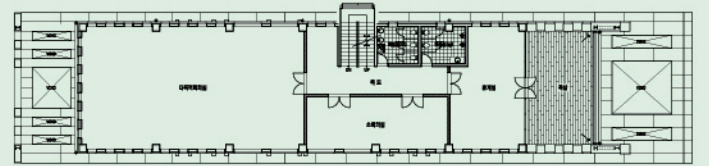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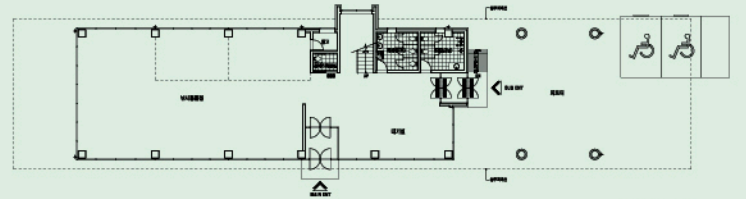




- 과업의 목적
 - 국동 다기능 여항의 개발과 연계한 낚시어선 터미널 건립으로 낚시객 편의 증진 및 수산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낚시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디자인 컨셉
 - 바다의 물고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킴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증가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람객 수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103,904명)을 넘으면서 2014년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목포근대역사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는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람객 증가 원인으로 근대역사관이 위치한 목포 원도심 일대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면 단위 문화재로 등록(등록문화재 제718호)된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원도심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문화재 야행(夜行)' 및 '생생문화재(옥단 이와 함께 하는 목포근대역사여행)' 등 근대문화유산 활용 연계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많은 관람객을 유인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tvN의 '호텔 델루나' 드라마 촬영지 활용을 통한 미디어마케팅,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했던 테마 여행 10선 대국민 이벤트 등을 통해 목포근대역사관이 더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앞으로 근대역사관 경관조명 정비, 전시물 확충 등으로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성을 높여 목포를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근대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지역 20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소폭 하락

건축 인허가 면적이 371만7천㎡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전남지역의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남은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371만7천㎡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건축 착공을 인허가 용도별로 보면 전남의 경우 주거용이 33만8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용이 41만2천㎡, 공업용이 22만7천㎡ 순이었다.

전남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서 전국 첫 혁신박람회 개최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 원도심의 빈 주택·상가 등을 전시공간으로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기억의 터전위에, 혁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혁신박람회는 지역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사업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지자체에서 혁신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라

남도가 전국 최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목포 원도심의 빈 주택·상가와 본연의 역사·문화자원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도시재생과 혁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소유한 빈 건물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리를 행사장으로 조성, 주민-지자체 협업 수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관은 목포 원도심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 전남혁신관(구 화신백화점)과 정부혁신관(구 양곡창고 A동), 행정혁신관(구 양곡창고 B동), 공간혁신관(구 박석규미술관 1층), 공공서비스혁신관(구 박석규미술관 2층), 디지털혁신관(구 한미곡물상회·대광오토바이)으로 구성됐다. 전라남도, 시군 및 정부의 혁신 우수사례와 정책 등을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일정 안내

1. 교육종류 및 인정시간 : 전문교육 6시간 / 윤리교육 1시간
2.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장소
전문교육	9월 27일 (금)	10:00 12:00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방법	이강근 건축사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13:00 15:00	설계계약관련 제문제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	
		15:00 17:00	모바일 감리웹 시스템 교육 (도 협회 감리웹 사용법 교육)	박지훈 (더셈비스타 실장)	
	10월 4일 (금)	10:00 12:00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방법	이강근 건축사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본관동 2층, 206호 중회의실
		13:00 15:00	설계계약관련 제문제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	
		15:00 17:00	모바일 감리웹 시스템 교육 (도 협회 감리웹 사용법 교육)	박지훈 (더셈비스타 실장)	
윤리교육	12월 중	1시간	몸의 범주화와 윤리학	명혜영 교수 전주대학교 교수 광주시민인문학(협) 대표	건축인의 밤 행사 장소 (장소 미정)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정종현 건축사 / 하하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371-1
- 전출
 - 이명동 건축사 → 제주도 전출
- 변경(소재지)
 - 최세호 건축사 /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완산천길18, 2층
 - 이종호 건축사 / 성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897, 1동 102호실
 - 이용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레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길 3, 1층
 - 정대연 건축사 / 미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712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역서 지역건축사 역할 등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와 전북건축사회 공동주최... '전주역사 건립과 전주 도시재생'과 연계



지난 9월 6일 전주역 대합실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주시민들과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되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및 일반 시민, 관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자리했다.

정동영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주의 새로운 지역발전 차원에서 전주역사 건립과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역사의 경우 천만 관광객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역사건립을 위해 국제현상공모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전주역사의 건립 및 전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지역건축사들의 역할 및 참여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상호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석정훈 회장의 인사말과 이길환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주제발표에서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의 '전주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전주역사와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이길환 회장의 '지역건축사의 역할 및 협력방안'과 '지역건축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의 발제가 있었고,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정동영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 및 여러 참석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지난 5월에도 국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 나서

지난 8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경로당에... 선풍기 및 청소기도 기증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태원)는 지난 8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12-3에 위치한 신낙원 경로당을 찾아 선풍기 및 청소기 등을 기증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13-14에 위치한 사거리 경로당의 노후 된 환경정리 및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주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회원 10여 명과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구슬땀을 닦아가며 사랑 나눔에 열중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과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이 참석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태원 회장은 "기존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진행해 오던 사회사업을 금년에는 관내 경로 시설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사랑의 집수리(도배 및 환경미화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축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추후 사회진출을 앞둔 건축 전공 대학생들에게 나눔의 실천현장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의미를 깨닫는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수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건축 전문가단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앞서나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수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건축 전문가단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앞서나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 이길환 회장,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

지난 8월 27일 전주시도시혁신센터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 개진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월 27일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원도심에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영식 사업총괄 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의 주재로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과 LH도시재생지원기구 한인구 선임연구원, 즐거운도시연구소 정수경 소장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참석한 전북중소상인연합회 박영근 회장이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를 목표로 전주시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3개 동 일부(1.43km²) 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진단 및 재생 여건 분석을 통해 지난 2017년 3월에 수립·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발견된 계획의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고,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로공간

정읍산림조합산지유통센터

송택신 건축사 / (유)송택신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41
 Tel. 063-227-3377



개선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경제·문화적 재생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 전주시민들이 문화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공동체 활동, 교육 활동 등을 원도심에서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와 국토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제지역 류충렬 건축사, 저소득 독거노인 위해 100만 원 성금 기탁
 지난 8월 7일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에... 해마다 추석 명절에 쌀 기부도



지난 8월 7일, 김제지역건축사회 류충렬(금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본인의 고향인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에 폭염 취약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 기탁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류충렬 건축사는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부(류인갑, 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뜻을 이어 해마다 추석 명절에 사랑의 쌀을 보내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해왔다.

류충렬 건축사는 "덥지만 전기세 아끼느라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맘껏 틀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국토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해신동, 소룡동, 월명·영화동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신청... 9월 말에 발표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해신동, 소룡동, 월명·영화동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고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해신동은 중심시가지형, 소룡동은 주거지원형, 월명·영화동은 지역특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고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으로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신동은 해망굴, 수산물센터를 연계한 거점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주변을 네트워크화하는 전략을, 소룡동은 노후 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월명·영화동은 우수한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선도지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해신동은 두 차례, 소룡동은 세 차례 공모에 탈락해 재도전하는 대상지로 지난번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활성화 계획 등에 수정과 보완을 거쳐 금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9월 말 사업대상지가 최종 확정되어 3곳이 모두 선정이 되면 총 4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매칭으로 총 6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북지역 올해 상반기 건축물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17.3% 급감해
 전년 동기 266만2천㎡로 17.3% 급감, 착공은 3%, 준공도 17% 줄어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9%, 착공 10.0%, 준공 0.2% 등 모두 감소됐다고 지난 8월 26일 밝혔다.

전북지역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266만2천㎡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급감했고, 착공은 3%, 준공도 17% 줄었다.

상반기 도내 건축물 용도별 허가를 보면 전체 인허가 면적 226만2천㎡ 중 주거용이 52만8천㎡로 가장 많았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 51만2천㎡, 공업용 30만9천㎡, 문교사회용(의료시설·문화시설)은 11만7천㎡로 집계됐다.

건축물 용도별 착공은 주거용 55만9천㎡, 상업용 52만㎡, 공업용 30만2천㎡, 문교사회용 7만2천㎡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도내 건축물 준공은 주거용 102만8천㎡, 상업용 42만3천㎡로, 공업용 18만6천㎡, 문교사회용은 14만4천㎡로 집계됐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사무소 명칭 변경)

- 국중훈 건축사 / (주)삼무 건축사사무소 → 대광 건축사사무소
- 심재룡 건축사 / (유)균정 건축사사무소 → 균정 건축사사무소
- 오경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림 → AUD 건축사사무소
- 박정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백 → (유)건축사사무소 태백

•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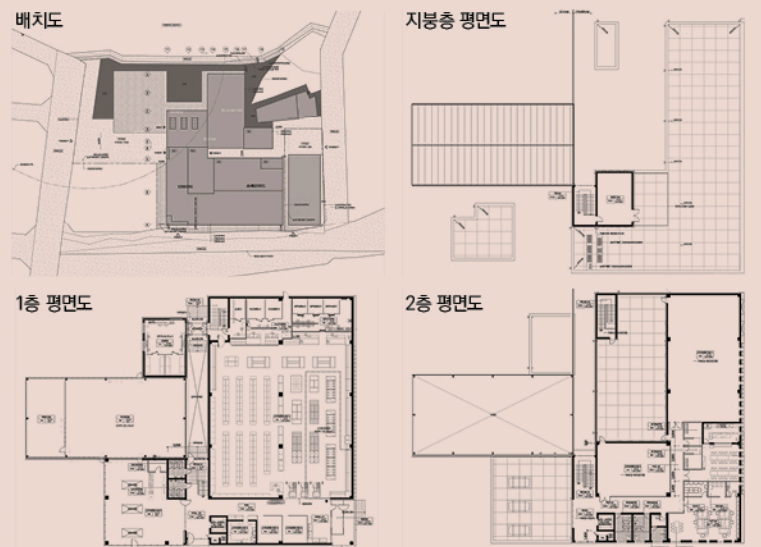
- 정태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화신 / 아들 결혼 - 09월 07일(토)

• 부고

- 양태화 건축사 / 어울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8월 03일(토)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8월 08일(목)
- 조익환 건축사 / 성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9월 02일(월)



- 설계목표
 - 정읍산림조합 조합원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임산물의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아갈 상권구축
- 설계주안점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쇼핑에 적합한 판매장 내부공간 구성
 - 무장애계획으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세부계획
 - 고객주차장과 하역장을 분리하여 접근성과 안정성 확보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9. 11. 27(수) ~ 30(토) COEX 1층 B Hall

건축전문전시회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코엑스
- 전시품목 : 우수건축자재, 건설장비, 조경, 신재생에너지, IT, 고효율 에너지 절약기기, 관련업체 등
- 동시행사 :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녹색건축한마당,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 관련 세미나, 건축자재추천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시상 등

건축자재추천제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 일반인 등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합니다.

- 대 상 : KS 등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인증된 건축자재 중 추천신청 제품
- 절 차 : **1차심사** 전국 건축사 추천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2차심사 대한건축사협회 자재추천위원회 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공람 15일 후 추천 안내 및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T 02-3415-6866, 6867, 6876 F 02-3415-6899 E kaff2019@naver.com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제16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총상금 400만 원, 광주·전남 내 우수 건축물 대상, 10월 4일까지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2019년 제16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반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공모주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내 우수 건축물(건축물/공간)이며,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10월 4일까지 1인 2작품 내에 12"×17" 사이즈의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 파일과 참가신청서를 광주건축사회(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총상금 400만 원으로 대상 1점 100만 원과 최우수상 2점 각 50만 원, 우수상 4점 각 25만 원, 장려상 8점 각 10만 원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광주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오는 9월 28일 진행, 부산시 일원 답사, 9월 2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9월 28일 2019년 광주건축문화투어 부산시 우수건축문화 답사를 진행한다.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년 광주의 건축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 및 건축 전공 학생들의 학구열 제고,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2019년 부산건축제 참관과 2017년 부산다운건축상 공공부문 동상을 수상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초량 이바구길'을 답사하게 된다.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은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선착순 8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20일까지 광주건축사회로 전화(062-521-0025~6) 또는 메일(gjkira@empas.com) 접수 후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6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광주 소재 유치원생·초등학교 저·고학년 대상... 오는 9월 27일까지 작품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작품접수를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소재 유치원생·초등학생(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함께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쉼트지 4절지(크기 39.4cm x 54.5cm), 초등학생 저학년과 유치원생은 8절지(크기 39.4cm x 27.2cm)에 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 방문 제출 및 우편 제출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총상금 400여만 원이 수여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0720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기고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내 신생동아리 '상태', 학우들의 마음을 잡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 동아리 '상태'는 설립 1년이 되지 않는 '신생동아리'이다. 여러 동아리 중 지금껏 '상태'처럼 설계를 위한 동아리는 없었다.

설계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로서 신입생들에게 인기와 더불어 학과의 중심이 되는 동아리로 성장하였다.

'상태'는 주로 조별로 건축물을 선정,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주별로 하고, 저학년을 위해서 CAD 프로그램 시험을 통해 프로그램 실력을 높이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리 각 저학년과 고학년 조합의 2인 1조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저학년은 고학년에 배워기도 하고, 또 계획 이외의 쉬운 부분은 저학년에 맡기기도 하면서 선후배 간에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아리 '상태'의 1학년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수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배우고 동시에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법과 나의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설명하고 크리틱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디자인학과 내 다른 동아리들은 '상태' 동아리처럼 학년에 경계를 두지 않고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한다면 학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광주분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618호
 T. 062)385-5053 F. 062)385-5054

본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912호 T. 02)558-8123 F. 02)558-8124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1405호 T. 051)745-9191 F. 051)745-9195

“인간·환경·기술이 하나되는 친환경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연구 업무

- 스마트건축·도시연구
- 건강건축연구(WELL Building)
- 유니버설디자인·고령자주거연구
- 제로에너지 건축연구(ZEB)
- 건축환경 및 성능연구
- 건물에너지진단 전문기관
-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공동주택결로 성능평가기관

www.kriea.re.kr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림

능소화

능소화 주렁주렁 담벼락 매달렸네
 한낮의 여름날씨 땀방울 송물송물
 땅위에 떨어진꽃잎 눈물되어 흐르네
 그옛날 소화라는 소녀가 있었다네
 임금은 그림자에 반하여 빈궁으로
 모시고 밤낮주야로 사랑하여 주었네
 소화의 아름다운 미모를 시기하는
 신하가 임금님을 속이어 드물뿔출
 소화는 그리워하는 임금님을 못참아
 대궐 옆 담벼락에 기대어 상사병에
 걸리고 담벼락 옆 조용히 누웠다가
 죽으니 그곳이름이 능소화가 되었네



* 능소화 : 하늘을 업신여긴다는 양반꽃 또는 구중궁궐의 꽃이라고도 한다

세상사는 느낌 _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장소와 기억

‘생산에서 소비로...’,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본인이 진행한 지난 학기의 프로젝트는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리노베이션으로 장소와 공간을 재창조하는 작업이었다.

문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을 옛 약품 공장을 주체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전 생산의 장소였던 폐산업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되어 잃어버린 그 장소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재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벌이는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그곳의 의미와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낙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용도를 설정해야 하는가, 그로 인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였고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의문점이 생겼다. 실제로 이루어진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을 참고하면서 장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왜 이곳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을 하고 기억을 살리기 위한 아카이브 전시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 장소의 설계과정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까지 예측해야 하는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 그와 접목시키는 것까지의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다.

리처드 잉거솔은 ‘오늘날 버려진 산업 구조물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시대를 향한 향수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이끈 동력이 되었던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쓸모를 다 한 땅과 건물을 되살려 도시에서 다시금 일말의 생산이 시작되길 누군가는 바라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난 학기의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 채 아쉽게 끝이 났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진행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예전 산업시설에 작업을 가졌던 또는 그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저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고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그저 작품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 변화를 통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장소에 대한 감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진 계기가 되었다.

책 소개 _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젊은 건축가 (경계의 가치를 묻다)

김이홍, 문주호, 임지환 외 2명 저 / 안그래픽스 / 2018. 10. 05.

‘진리는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만이 나를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 책은 2018년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상을 받은 3팀의 이야기를 실은 책으로써 ‘개념과 구축’, ‘기술과 예술’, ‘공공과 사유’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묻고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젊은 건축가상이란 일개 기업이 아닌 공공이 주는 상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다른 이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공공과 소통할 수 있어야 취지가 살아난다.

나는 책을 통해 그들의 작품을 접했지만 사진과 글로만은 상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건축관의 고민들을 엿본 느낌이었다.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건축가들이 건축을 이끌어 나아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니 그 건축가들의 건축관을 더 가까이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날짜와 숙소만 정한 후 서울로 가서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건물들을 보았다.

그 당시 김이홍 건축가가 전시를 하였던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다녀왔다. 사진으로는 어째서 이들이 대한민국 건축가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되는 상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실제로 본 건물은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곳에 삶의 방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지에 녹아들어 있었다. 전시가 이루어졌던 아모레퍼시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옥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도 건축가의 의지가 곳곳에 보였다.

경계 없는 작업실의 ‘후암동 복합 주거’는 아주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책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녀오고 책을 다시 읽으니 어느 부분에서 건축가가 경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건축에 어떤 물음을 던지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서 경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처음 말한 것처럼 진리란 무겁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내린 경계의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아직 자신이 묻는 것에 대답을 찾지 못한 나와 같은 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으면 좋겠다.

문의 | 1855-2240

난연액 도포

■ BASF 네오폴(Neopor)에 특수 난연 코팅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 보드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

검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